

국가 경제난과 양계산업

- 홍 보 부 -

외 환화로 사실상 국가 부도위기로까지 몰렸던 우리나라 경제가 IMF, IBRD 등 국제 경제 지원기구로부터 외화를 긴급 지원받는 조치가 강구되면서 최대 고비를 일단 넘겼다는 분석이다.

매년 4%대의 성장을 보여 왔던 양계업이 당장 '98년부터 어떤 형태로 국가 경제난과 맞물려 흘러갈지 예측이 쉽지 않다.

이번의 외환위기를 보면서 양계업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취약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내 땅에다 파이프 계사를 지어 닭을 키웠을 때에는 감가상각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양계장은 최첨단 컴퓨터까지 등장하여 말 그대로 장치산업이란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

경제 위기의 감지는 여러해 전부터 여러 사

람이 인식해 있었다. 심지어 양계인들마저 이렇게 먹고 써도 괜찮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경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걱정을 하였었다.

그러다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 선진우방국이 아니었으면 국가가 부도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수위까지 다다라서야 국민과 정치인·경제인들이 후회하는 기미를 보였다.

양계업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시설자동화로 생산수수가 증가하여 적자 경영에 시달리면서도 부도가 났다는 농가들이 없자 양계인 스스로가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가져왔었다.

양계업도 알고보니 차입경영에만 의존해 왔다는 증거들이 사료가격이 인상되면서 현찰거래로 바뀌자 문제점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생산자동화 설비만 하겠다는 신념을 굳혔을 때에는 고금리 외환리스 자금이 무료인 것처럼

럼 보이는 현상을 감지하지 못하여 지금 후회의 늪에서 깊은 시름에 잠기는 양계인들이 많다.

지난 수십년전 닭을 키우기 위해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하고 밤잠을 설치며 연탄불을 갈아가며 일구어 놓은 양계장들이 경제개발과 동시에 지가가 높아져 돈을 쉽게 벌었다는 식의 외형이 내비추어지자 돈이 풀리면서 너도 나도 양계장 주인이 되었다.

시설자동화를 한 모든 양계인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니다. 자기자본율이 10%대도 넘지 못하는 양계장들이 후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양계인도 따지고 보면 어느 축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외환위기가 오는데 일조를 했다고 반성을 해야 한다.

어지간한 시설이면 외국에서 온 것이고, 이 같은 시설을 하기 위해 수차례씩 견학이다 여행이다 하면서 외화 아까운 줄 모르고 써버렸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 같다.

이제 경제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데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은 계속늘어 양계산물 소비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계인들도 밀려나면 파산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어 마지막 양계장 지키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어 쉽사리 생산량이 경제위기에 맞추어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간 일시에 가격이 폭락하여 줄줄이 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아직도 내것이 아닌 리스자금으로 설치한 기계들이 사료와 병아리를 사넣지 못하면 우리 양계인들도 우리나라의 외화난을 부축인 부류

에 속한다는 죄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일은 났는데 마무리를 잘 지으려는 진정한 책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데 우리 양계업계도 수백만불씩 막대한 외화를 써가며 설치한 기계들이 고철이 될 수도 있는 또다른 위기 속으로 가고 있는데 부문별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굴을 맞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높아진 출하가격에 도취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건 나오는 상관없이 있다는 모습이다. 실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70년대 오일파동을 넘었다는 생각으로 아직도 1만불시대의 허상 앞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양계업은 대부분 차입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감가상각, 금융비용, 지가하락 등 가동을 하지 않으면 곧 도산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갑자기 변한 상거래에 넋을 잃어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많은 양계인들은 IMF가 제시한 경제지표가 어떤 영향을 양계업에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없다.

이제 우리 양계업은 어려워도 가동을 시켜야 하는 발목잡힌 신세가 되었다.

문제해결 능력은 양계인들이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경제가 안정되면 수입산물과의 힘겨운 경쟁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더 늦기전에 양계인들의 문제는 양계인들이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인 것 같다. **양계**